



미 증시, 성장주 중심으로 급등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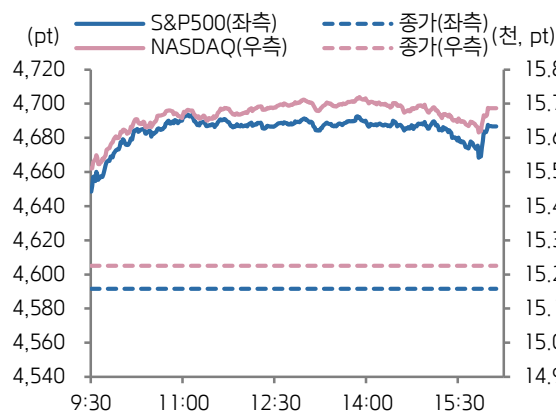
07 일 (화)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소식들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감.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Almost certainly)”라고 언급. 이와 더불어 영국 제약회사 클락소 스미스클라인의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 개선. 코로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 장기물 금리 상승에 불구하고 애플(+3.5%), 마이크로소프트(+2.7%), 엔비디아(+8.0%), 테슬라(+4.2%) 등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 급등(다우 +1.4%, S&P500 +2.07%, 나스닥 +3.03%, 러셀 2000 +2.28%)

또한 금주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킨 바이든과 푸틴의 전화 통화는 시장 예상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줌. 두 정상은 양국간 안정, 램섬웨어, 이란 등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고 백악관 서명에서 공개됨.

업종별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IT(+3.5%), 경기소비재(+2.4%), 에너지(+2.3%)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필수소비재(+0.2%), 유틸리티(+0.8%), 산업재(+1.0%)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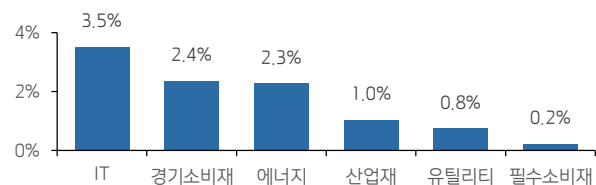
종목별 흐름으로 애플(+2.9%)은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조정(164→200 달러)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AR, VR 관련 신제품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 인텔(+3.1%)은 2022 년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Mobileye)를 상장 시킬 계획을 공개하면서 전일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감.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오토존(+7.6%)은 EPS 25.69 달러(예상 21.01 달러)와 매출 36.7 억 달러(예상 33.7 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 클라우드 몽고 DB(+16.4%)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클라우드 및 반도체 섹터 5% 강세에 기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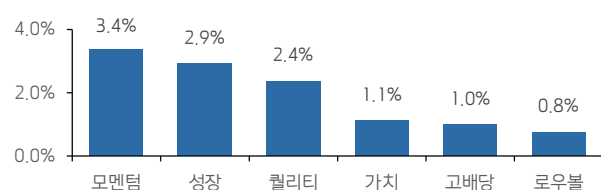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86.75	+2.07%	USD/KRW	1,179.40	-0.27%
NASDAQ	15,686.92	+3.03%	달러 지수	96.30	-0.03%
다우	35,719.43	+1.4%	EUR/USD	1.13	-0.12%
VIX	21.89	-19.46%	USD/CNH	6.36	-0.18%
러셀 2000	2,253.79	+2.28%	USD/JPY	113.54	+0.05%
필라. 반도체	3,988.75	+4.9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355.42	+0.17%	국고채 3년	1.867	+0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240	+2.5bp
Eurostoxx50	4,276.20	+3.36%	미국 국채 2년	0.693	+6.2bp
MSCI 전세계 지수	729.85	+0.78%	미국 국채 10년	1.482	+4.8bp
MSCI DM 지수	3,117.31	+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13.96	-0.87%	WTI	71.79	+3.31%
MSCI 한국 ETF	81.03	+1.57%	금	1784.9	+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5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대외 불확실성에도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수급 변화
2. 미국 성장 스타일 및 반도체 업종 강세로 인한 국내 성장 및 반도체 주 투자심리 개선 여부
3. 9 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관련한 외국인과의 선물시장 매매패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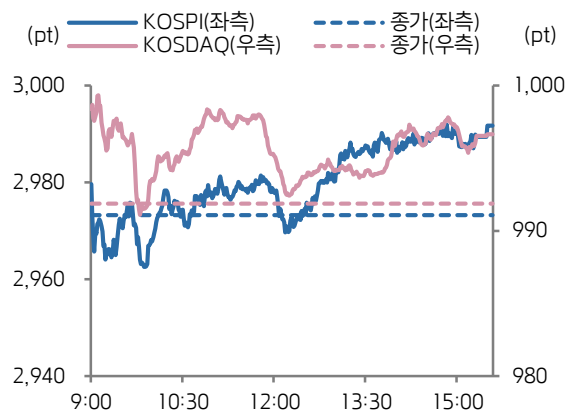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 국가 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밝혔듯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증상 정도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물론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들에 비해 강해 보이며, 이후에도 또 다른 신규 변이가 등장 하겠으나, 지난 델타 변이, 금번 오미크론 변이 때와 유사하게 정부의 강도 높은 전면 봉쇄조치를 실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 시 향후에도 코로나로 인한 증시 조정은 또 다른 매수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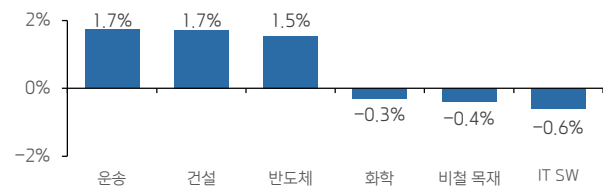
한편, 지난 12월 2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 섀도우는 해결했으나, 13일로 예정된 미국 의회의 공식활동 종료일까지 부채한도 상향 협상 문제가 잠복해있는 상황.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양당간 논의를 통해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0 월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적인 미국 경기 둔화 우려 확대 경험, '22 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표심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 시 부채한도 상향은 통과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 같은 오미크론 불안 및 미국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 금일 코스피도 성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3,000 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11 월 중에도 몇차례 3,000 선 안착에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 현재는 원화 강세 기조, 외국인 수급 개선, 반도체 및 자동차 업황 개선 기대감, 중국 경기 불안 완화 등 당시와는 달리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한 연말 대주주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로 인한 중소형주 수급 부담까지 감안해봤을 때, 연중 지속적으로 눌러 있었던 수출 대형주들이 12 월 주도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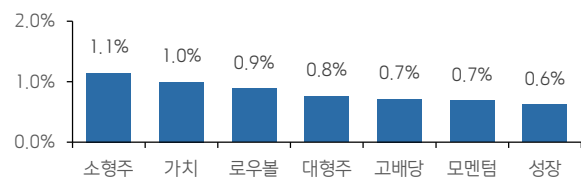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